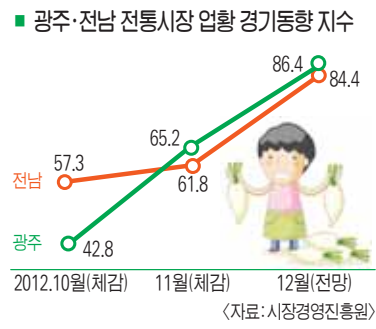


대형마트 휴업, 전통시장 '효과봤네'

광주·전남 시장 경기 체감지수 전년보다 70% ↑

고객수·매출·이윤 호전...경기동향은 전국 하위권



지역 전통시장 경기를 살리는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실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시장경영진흥원이 발표한 '10~11월 시장경기동향조사'와 통계DB를 살펴본 결과 광주·전남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경기를 비롯해 매출실적이 증가했다.

광주지역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시장경기동향지수(M-BSI)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 전인 지난해 11월에는 51.3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 11월에는 65.2로 지난해 같은 9번째로 높았다.

특히 지난해는 감점철 등 계절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지수가 58.0(10월), 51.3(11월), 49.4(12월)로 꾸준히 하락했지만 올해는 42.8(10월), 65.2(11월), 86.4(12월·전망)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 11월 매출실적지수도 63.2로 지난해 11월(48.0)보다 15.2포인트(약 32%)나 올랐다.

12월달 체감경기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는 49.4에 불과했던 12월 업황전망지수도 1년새 86.4로 37.0포인트(약 75%)나 올랐다.

전남의 경우 광주보다 대형마트가 적은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4곳(목포·순천·화순·무안)에 불과했지만 올해 체감경기지수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체감경기지수는 올 5월(74.9)과 9월(76.4)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1.4포인트, 23.1포인트나 상승했으며, 12월달 체감경기에 대한 전망도 지난해 49.0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는 84.4로 35.4포인트(약 58%)나 올랐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전통시장들의 체감경기·매출실적·자금사정·마진 등 시장경기동향지수는 전국 16개 시도중 12~16위 수준으로 타지역보다 전반적으로 경기상황은 좋지 않았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11월 전통시장의 체감경기지수는 61.0으로 전월보다 6.7포인트 상승하는 등 모든 항목에서 전월보다 호전됐다.

구매 고객 수는 전월보다 12.6포인트 오른 63.5, 매출은 12.0포인트 오른 66.4, 상품 판매가격은 9.1포인트 오른 105.6, 이윤은 8.3포인트 오른 66.9, 자금 사정은 8.3포인트 오른 63.2를 기록했다.

시장경영진흥원 관계자는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한 조례를 연이어 개정해 주말에 휴업하는 대형마트가 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경기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11월 M-BSI가 전월보다 상승한 이유는 추석 직후의 소비 심리 위축 요인이 안정되고 본격적인 감점철이 시작되어 전통시장을 찾는 유동인구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시장경기 동향 지수(M-BSI·Market-Business Survey Index)= 전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수. 100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경기 악화, 초과하면 경기 호전을 뜻한다.



소외이웃과 김치 나눔

신협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진승현)는 최근 나눔의 샘터에서 직원 50명과 광주남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와 함께 '신협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 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이날 마련된 김장포기는 지역내 독거노인 등 저소득가구 200세대에 전달 됐다.

〈신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제공〉

삼성전자주 내년 200만원 간다

대신·동양증권 전망

최근 최고가를 경신한 삼성전자 주가가 내년엔 2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8개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전자 목표주가는 평균 177만1786원이다.

대신증권과 동양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각각 200만원을 내놴. 가장 높은 가격이다. 나머지 증권사들이 전망한 삼성전자 주가는 KDB대우증권 190만원, 한국투자증권 185만원, 우리투자증권 180만원, 삼성증권 170만원 등이다. 하나대투증권은 가장 낮은 150만원을 제시했다. 주식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지난 5일 145만 5000원으로 마감해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6일에는 145만4000원으로 다소 내렸으나 작년 12월 29일 종가(105만8000원)보다는 37.4% 상승했다. 코스피는 이 기간 6.8% 올랐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주가가 내년에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블릿PC와 반도체 등 다른 부문에서도 내년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증권사들은 예상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은 33.9%로 16.0%의 애플을

근 차로 따돌리면서 정상을 지켰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내에서 휴대전화 사업은 올해 회사 전체 매출의 50%, 이익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휴대전화 사업 부문의 성공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실적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올해 삼성전자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해 200조7523억원에 달하고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인 28조824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매출액은 12.9% 늘어난 226조5948억원, 영업이익은 19.5% 증가한 34조43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光銀 소호명가, 전북 1호 탄생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지난 6일 오후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소재 (유)제회를 전북지역 제1호 소호명가(所湖名家)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유)제회는 업력 108년 이상 4대에 걸친 RPC(종합미곡처리장)업체로서 해방이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미국과 러시아 등지로 쌀을 수출한 업체로 대한민국 수출 1호(미국상품명: 칠새도래지쌀)로 유명하다.

광주은행 소호명가(所湖名家)는 평판과 인지도가 뛰어난 업체 중 광주은행 선정 고객으로 우리지역 소재 및 지역출신의 명가(名家), 명장(名匠)고객을 선정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역발전 기여를 실천하고 있다.

최재홍기자 lion@kwangju.co.kr

'카카오톡' 대항마 출격

이통3사 통합메시지 '조인' 내주 서비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통신사가 '카카오톡'에 맞서 차세대 통합메시지 서비스를 이르면 다음 주 시작한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지 않아도 가입 통신사에 관계없이 카카오톡처럼 즉석 채팅 등을 이용할 수 있는 'RCS(Rich Communication Suite)'를 다음 주 중 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름은 '조인(joyn)'이다. 조인은 세계 이동사들이 협력해 개발한 RCS에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정한 공식 브랜드다.

3사는 현재 RCS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 준비를 끝낸 상태다. 요금 부과 방안을 확정된 뒤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면 바로 상용화할 수 있다.

상용화 초기 3~6개월 동안에는 RCS를 무료로 제공한다. 프로모션 기간 이후에는 데이터를 차감하거나 일정 요금제 이상 사용자에게 한해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RCS는 단순한 채팅뿐만 아니라 통화 중 멀티미디어 콘텐츠 공유, 와이파이·영상 채팅, 그룹 채팅 등 다양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주소록으로 '통화 가능', '통화 불가능', '회의 중' 등 가입자의 실시간 상태를 상대방에

게 알려주기도 한다.

RCS는 GSMA가 인증한 표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이동사들이 단말기 종류와 통신사, 유·무선 등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다. RCS로 각각의 이동사 가입자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3세대(3G)와 통째로 불투선(LTE) 망을 모두 지원하며 서비스 상용화 이후 출시되는 단말기에 기본적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RCS를 '카카오 대항마'로 부르고 있다. 국내외 이동사들은 카카오톡과 같은 스마트폰 무료 메시지 앱의 보급으로 문자 이용량과 수익 감소하는 상황에서 RCS가 일종의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가 부자되는 큰 복을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더 넉넉한 서비스로 고객님의 성공하는 금융플랜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와 함께 큰 복 누리는 새해 되세요.

MG 새마을금고